

‘기독교’의 어원, 도입 및 한국 교회와 사회에서 정착 과정*

김 형 곤**

국문 초록

‘기독교’의 어원은 일차적으로 ‘기두’로 발음되는 중국어(漢語) ‘基督’이며 이는 ‘기리스두’로 발음되는 음역어 ‘基利斯督’의 축약형이다. 따라서 보다 근원적 어원은 라틴어 ‘Christus’이고, 궁극적으로는 그리스(헬라)어 ‘Χριστός’이다. 결국, ‘기독교’는 ‘기리스도’의 중국어식 축약형 칭호의 한국어식 변형이다. 또한 ‘기독교’의 어원은 중국어 ‘基督教’이며, 이는 ‘基利斯督’[기리스두]의 축약형 ‘基督’[기두]에 종교를 의미하는 ‘教’자를 결합한 합성어로서 영어 ‘Christian religion’(그리스도교)에 대응하는 중국어 음역어의 한국어식 변형이다.

중국에서 형성된 음역어 ‘基督(教)’이 1870 년대에 일본으로 전해졌고, 우리나라에는 『漢城旬報』(한성순보) 1884 년 7 월 중순호에 최초로 등장했다. 그럼으로써 이 용어는 그리스도(교)에 대한 ‘동아시아’식 축약형 언어가 되었다. 그 뒤 ‘基督(教)’은 『독립신문』(1897 년 7 월 27 일에 ‘기독교’)으로 등장했고, 1933 년에 제정된 ‘한글맞춤법통일안’에 따라 ‘기독교’)으로 표기되어 오늘에 이르면서 사회는 물론 교회의 그리스도인들도 이 말을 사용하고 있다.

* 본 논문은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역사위원회가 주관한 “2021년도 한국교회사 논문 공모”에서 최우수 논문(총회장상)으로 채택된 것으로 총회 역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후반부를 게재한다. 아울러 이 논문은 필자의 이전 논문에 이어진 연장이다. 김형곤, “‘기독교’[基督(教)]이라는 용어의 형성과정과 이 용어 사용에 대한 반성적 고찰,” 『신학과 사회』 제33집 제3호(2019), 65-113.

** 광주북문교회/ 담임목사(전 한일장신대 교수)/ hkkim3@gmail.com

그러나 ‘기독교(교)’이라는 용어는 중국어로부터 빌려온 차용어(借用語)에 머물러 있으며 ‘그리스도’의 칭호와 정체성을 상실한 말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주님 ‘그리스도’의 칭호를 되찾아 드려야 한다. ‘기독교’라는 용어는 ‘그리스도교’로 수정되어야 하고, ‘기독교’를 어두로 하는 합성어나 복합명사들은 이제 ‘그리스도교[인]’을 어두로 붙여줌으로써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드러나게 해야 한다.

주제어: 基利斯督, 基督(敎), 기독교(교), 그리스도(교)

I. 들어가는 글

‘기독교’라는 용어는 한국 교회에서는 물론 한국 사회에서도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아울러 ‘기독’을 어두(語頭)로 하는 합성어나 ‘기독’이 들어간 복합어가 다양하게 만들어져 사용되고 있다. 기독인, 기독 학생, 기독 청년, 기독 정신 등을 그 용례로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보편적 용어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기독교(교)’이라는 말 자체에서 우리는 어떠한 의미나 상징 요소를 찾아내기 어렵다. 설령 ‘기독교(교)’에 해당하는 한자어 ‘基督(敎)’을 인지할지라도 이 한자어에서 어떠한 의미나 상징을 찾을 수 없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이 점은 ‘예수교’라는 용어가 주님 ‘예수’를 직접 드러내며 ‘예수’와의 연관성을 직접 보여주는 것과 비교해 보면 즉시 드러난다.

아울러 현재 ‘기독교’나 ‘예수교’라는 용어는 개신교를, 그리고 ‘천주교’라는 용어는 가톨릭교를 지칭하는 용어가 되었다. 그러면 이러한 용어들이 한국 사회의 비그리스도인들에게 미치는 영향과 혼란스러움은 그리스도교 선교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 교회는 이러한 용어들이 어디서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그 연원을 밝히고 정확한 갈래와 체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학문, 예술 및 종교 등 문화를 외국으로부터 받아들일 때 그 문

화를 표현하고 전달하는 수단으로서의 언어는 외래어 혹은 차용어 형태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인명이나 지명과 같은 고유명사는 본디 이름을 찾아 불러주는 것이 마땅하다. 특히 그 이름이나 칭호가 신앙의 대상에 관련된 것이라면 더욱 그러하다.

그렇다면 ‘기독교(교)’이라는 용어가 지닌 이러한 문제점은 언제 어디서 발생하게 되었는가? 이 용어의 어원은 무엇이며 이 용어의 도입 및 정착 과정에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었는가? 그리고 이러한 문제점을 한국 교회가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인가? 우리는 이러한 질문들을 던지며 문제 의식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이 분야에 대한 연구는 아직 거의 전무한 상태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오직 그 첫걸음에 지나지 않으며 징검다리의 첫 돌에 불과하다. 먼저 ‘기독교(교)’이라는 용어의 어원을 찾아가려고 한다. 그리고 이어서 이 용어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 한국 교회와 사회에 도입되어 정착되었는가를 살펴보면서 이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의 뿌리를 찾아내려고 한다. 끝으로, 이 용어 사용의 문제점과 그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결론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를 전개함에 있어서 옛 중국 문헌, 국내외 신문 및 잡지 등 역사적 문헌에 대한 서지학적 접근방법을 사용하려고 한다.

II. ‘기독교’ 용어의 어원

‘기독교’라는 용어는 ‘기독’(基督)이라는 말과 종교를 나타내는 ‘교’(敎)자로 구성된 합성어다. 따라서 먼저 형성된 ‘기독’의 어원을 밝히고, 다음 ‘기독교’의 어원을 밝히도록 하겠다.

1. ‘기독’의 어원

일반적으로 중국 그리스도교 선교의 출발은 635년에 당(唐)의 수도인 長安(西安)에서 시작된 시리아 교회의 선교로 본다. 소위 네스토리우스(Nestorius)파라고 일컫는 그리스도교를 현종(玄宗) 때 경교(景敎)라고 부른다.¹⁾ 그 뒤 중국을 향한 좀더 본격적인 선교가 로마 가톨릭교회에 의해 전개된다. 1294년 프란치스코수도회 선교사 몬테코르비노(Montecorvino)의 선교 이후 우여곡절을 겪다가 보다 본격적인 선교는 16세기 후반 명대(明代) 말기에 예수회 선교사들에 의해 이루어진다.

1583년 중국 본토에 상륙한 예수회 선교사 루지에리(Michele Ruggieri, 羅明堅)는 ‘하나님’에 해당하는 용어로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의 공식 언어인 라틴어 Deus를 ‘天主’(천주)로 의역(意譯)했다. 그럼으로써 후에 ‘가톨릭 그리스도교’를 ‘天主教’(천주교)라고 부르게 되는 결정적 원인 제공자가 되었다.²⁾ 아울러 그는 1584년에 펴낸 교리서 『新編西竺國天主實錄』(신편서축국천주실록)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음역을 시도했다. 그는 라틴어 ‘Christus’(크리스투스)를³⁾

1) 경교(景敎)란 ‘별 경’(景) 자가 말해주듯이 ‘빛의 종교’인데 이는 요한복음서 1장에서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반영한다. 徐宗澤, 『中國天主教傳敎史概論』(1938)(上海: 上海書店, 影印本, 1990), 85.

2) 유승상, “예수회 중국 활동의 선구적 성과인 『천주성교실록』에 대한 초보적 연구,” 『신학과 철학』 제18호(2011 봄), 61-63.

3) 馬雲震, “早期傳敎士作品中的新詞創制,” 『山西大同大學學報』(社會科學版) 第29卷

당시 한어(漢語)로 ‘키리스두[도]’라고 발음되는⁴⁾ ‘契利斯督’(제리사독)으로 표기하였다.⁵⁾ 그런데 그 뒤 1636년에 초간된 디아즈(Emmanuel Diaz, Jr. 陽瑪諾)의 번역서 『天主降生聖經直解』(천주강생성경직해)에서 전반부에는 ‘契利斯督’(제리사독)이 나타나다가 제6권부터는 ‘基利斯督’(기리사독)이 나타난다.⁶⁾ 그리고 그 뒤 문헌들은 이 ‘基利斯督’(기리사독)을 사용함으로써 ‘그리스도’에 대한 음역어는 ‘기리스두[도]’로 발음되는 ‘基利斯督’(기리사독)으로 정형화되어 간다.⁷⁾

한편, 음역어 ‘基利斯督’(기리스두[도])가 그리스도의 중국어 칭호로 사용되는 과정에서 축약형이 나타나는데, 이는 표기의 복잡성 때문으로 추정된다. 처음에 과도적으로 나타난 축약형은 ‘기스두[도]’(基斯督, 1700년경)이다.⁸⁾ 그리고 본격적으로 나타난 축약형은 ‘基督’(기두[도])이다. ‘基督’(기두[도])는 바셋(Jean Basset, 白日晷, 巴設) 선교사가 1707년 세상에 남긴 중국어 성경 사본에 ‘基利斯督’

第1期(2015. 2), 68-69.

- 4) 이 발음은 예수회 트리코(金尼閣, 1577-1628) 선교사가 선교사들의 눈과 귀가 되도록 1626년에 편찬한 문자학 관계서적을 근거로 했다. 金尼閣(Nicolas Trigault), 『西儒耳目資』(下冊)[列邊正譜](1626)(北京: 文字改革出版社, 影印本, 1957), 236, 187, 165, 192.
- 5) 羅明堅(Michele Ruggieri), 『天主聖教實錄』, 27(後面). 이것은 원래 1584년에 출판한 『新編西竺國天主實錄』을 루지에리 사후인 1637년에 예수회 선교사들이 개명하여 출판한 것이다. [온라인자료] <https://archives.catholic.org.hk/Rare%20Books/CTJ1/index.htm>(2021. 5. 17 접속).
- 6) 陽瑪諾(Emmanuel Diaz, Jr.), 『(天主降生)聖經直解』第1卷, 13(前面), 24(後面), 25(前面)와 第6卷, 26(前面, 後面). 第8卷, 40(前面) 및 第10卷, 5(後面) 등 참조. [온라인자료] <https://gallica.bnf.fr/ark:/12148/btv1b9006259g/f397.image> (2021. 5. 17 접속).
- 7) ‘그리스도’에 대한 음역어 ‘基利斯督’(기리사독)을 구성하는 각 글자의 발음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김형곤, “‘기독교’[基督(教)]이라는 용어의 형성과정과 이 용어 사용에 대한 반성적 고찰,” 75-83 참조.
- 8) ‘基督’(기사독)은 저자가 아직 밝혀지지 않은 『萬物始元』(만물시원)의 “救主聖誕 第26章”에서 1회(125면), “救主聖誕 第26章 問答”에서 4회(128, 129면)나 ‘基利斯督’과 함께 나타나고 있다. [온라인자료] <https://gallica.bnf.fr/ark:/12148/btv1b9006575m/f68.image> (2021. 5. 18 접속).

(기리스두[도])와 함께 최초로 나타난다.⁹⁾ 그 뒤 많은 성경에 이 축약형 ‘基督’(기두[도])가 계속 등장하면서 ‘基督’(기두[도])는 그리스도의 중국어 축약형 칭호로 자리를 잡게 된다.

한편 이러한 흐름은 1807년에 영국의 모리슨(Robert Morrison, 馬禮遜) 선교사에 의해 시작된 중국의 프로테스탄트(更正教, 경정교)에도 계승된다. 1814년에 중국어로 번역 출판한 신약성경 『耶穌基利士督我主救者新遺詔書』(야소기리스독아주구자신유조서)에서 모리슨은 ‘예수 그리스도’를 ‘耶穌基利士督’(예수기리스두[도])로 표기할 뿐만 아니라 이미 형성된 축약형 ‘基督’을 사용하여 ‘耶穌基督’으로도 표기하고 있다.¹⁰⁾

결국, ‘기독교’의 어원은 일차적으로 ‘기두’로 발음되는 중국어(漢語) ‘基督’이며 이는 ‘기리스두’로 발음되는 음역어 ‘基利斯督’의 축약형이다. 그래서 ‘기독교’의 보다 근원적 어원은 음역의 대상이었던 로마 가톨릭 공식 언어인 라틴어 ‘Christus’(크리스투스)이고 궁극적으로는 신약성경 그리스(헬라)어 ‘Χριστός’(크리스토스)이다. 따라서 ‘기독교’는 결국 ‘그리스도’의 중국어식 축약형 칭호의 한국어식 변형이다.

2. ‘기독교’의 어원

‘基督’[기두]라는 축약형 칭호가 18세기 초부터 사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基督教’라는 용어의 등장시기는 19세기 후엽이다. 이렇게 단정하여 말할 수 있는 근거는 그 무렵에 출간된 어휘사전에 ‘基督教’라는 용어가 전혀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¹¹⁾

9) 마태복음서 1:1; 2:4; 16:16, 20; 22:42, 45; 누가복음서 2:11, 26; 요한복음서 4:25; 7:26, 27 등.

10) 모리슨의 용어에서 한 가지 다른 점은 그리스도의 칭호 표기를 ‘基利斯督’에서 ‘基利士督’으로 바꾼 점뿐이다. 그러나 그가 펴낸 사전들에 의하면 ‘士’는 ‘斯’와 같은 병음이다. 한편, 중국의 프로테스탄트 선교에 관한 좀더 상세한 내용은 김형곤, “‘기독교’[基督(教)]이라는 용어의 형성과정과 이 용어 사용에 대한 반성적 고찰,” 85-91 참조.

또 1850년대 언론지에도 아직 그 용어는 등장하지 않는다. 그 예로, 아편전쟁 이후 선교의 자유를 얻고 선교기지가 된 홍콩에서 처음 나온 선교용 월간 잡지로서 1853년 8월에 창간하여 3년간 발간한 『遐邇貫珍』(하이관진, ‘멀고 가까운 소식을 진주처럼 꿰 잡지’)을 들 수 있다.¹²⁾ 이 잡지에 ‘耶穌’가 자주 등장하고 ‘耶穌教’가 ‘天主教’와 구분되면서 경정교(개신교)를 나타내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¹³⁾ 그리고 뒤로 갈수록 ‘信基督者’(기두[그리스도]를 믿는 자), ‘耶穌基督’ 등 ‘基督’라는 용어 사용의 빈도가 높아지지만¹⁴⁾ ‘基督教’라는 합성어는 등장하지 않는다. 이 잡지에 이어서 같은 선교회에서 1857년부터 1858년까지 발간한 월간지 『六合叢談』(육합총담)은 과학잡지이지만 서양을 비롯한 각 나라 소식도 나오는데 ‘耶穌’와 ‘天主堂’이라는 말은 나오지만¹⁵⁾ ‘基督教’라는 용어는 등장하지 않는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축약형 칭호 ‘基督’에 종교를 나타내는 ‘教’자를 붙여 사용하게 된 동기와 배경을 살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특히 중국에서는 이미 1603년 『天主實義』에서 ‘天主教’라는

- 11) 예를 들면, 1844년에 출간된 윌리엄즈의 어휘사전은 “CHRIST” 항목에서는 “基利斯督 *Ki-li-sz'-tu*, or 基督 *Ki-tu*”라고 설명하면서도 정작 “CHRISTIANITY” 항목에서는 ‘基利斯督教’나 ‘基督教’가 아닌 ‘耶穌教’로 표기하고 있다. S. W. Williams, *An English and Chinese Vocabulary in the Court Dialect*, 35 (s.v. “CHRISTIANITY”). 또, 1847년에 출간된 개신교 선교사 메드허스트의 사전에서 표제어 “CHRISTIANITY” 항목의 설명내용도 대동소이하다. W. H. Medhurst, *English and Chinese Dictionary* [Vol. I] (1847), 231 (s.v. “CHRISTIANITY”). 이것은 당시 중국에서는 아직 ‘基督教’라는 용어가 사용되지 않았음을 반증한다.
- 12) 차배근, 『중국근대언론발달사(1815-1945)』(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09), 44-45.
- 13) 특히 1854년 10월 말일 호와 1855년 10월 1일 호 참조.
[온라인자료] [Search Result - MMIS \(hkpl.gov.hk\)](http://searchresult.mmis.gov.hk)(2021. 5. 19 접속).
- 14) 특히 1856년 2월 1일 호와 1856년 5월 1일 호(마지막 호) 참조.
- 15) 『六合叢談』卷一(1857. 1. 26), 3면; 卷四(1857. 4. 30), 12-13면.
[온라인자료] <https://gallica.bnf.fr/ark:/12148/btv1b9006575m/f68.image> (2021. 5. 19 접속).

용어가 나타난 뒤 이 용어는 ‘그리스도교’를 나타내는 용어로 자리를 잡았다. 그리고, ‘耶穌教’[예수교]라는 용어도 로마 가톨릭 그리스도교를 지칭하는 용어로 ‘天主教’와 병행해서 사용되어 왔다. 그러다가 19세기 초부터 경정교(개신교) 그리스도교 선교사들의 중국 선교로 말미암아 개신교 그리스도인들이 늘어나면서 양자의 구분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때 가톨릭은 오래전부터 사용하던 ‘天主教’라는 용어를 고수했고, 경정교(개신교)는 ‘耶穌教’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양자가 자연스럽게 구분되었다. 그렇기에 굳이 ‘基督教’(기독교)라는 또 다른 용어를 필요로 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무슨 동기나 이유로 굳이 ‘基督教’라는 말이 다시 필요하게 되었을까? 우리는 당시 시대적 상황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다. 당시 영국을 비롯한 유럽 열강들이 인도를 거쳐 점점 동아시아를 향해 몰려오면서 먼저 중국에 ‘포함외교’(砲艦外交, Gunboat diplomacy) 전략으로 문호개방을 압박해왔다. 이 사실은 아편전쟁에서 그대로 드러났으며 그 구체적 내용은 중국과 영국을 비롯한 서양 열강들 사이에 체결된 불평등조약에 반영되어 있다. 바로 그 조약에 ‘基督教’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한다.¹⁶⁾

제2차 아편전쟁(1856-1860) 중 1858년 6월 18일에 중국과 미국이 체결한 中美天津條約(중미천진조약) 제29조에 그리스도교 선교를 보장하는 내용에서 “耶穌基督聖教, 又名天主教”(야소기독교, 우명천주교) 즉 “耶穌基督教(야소기독교), 또 天主教(천주교)라고도 이름하는”이라는 중국 측 문서의 구절이 나온다. 국제조약이라는 공식 문서에 드디어 ‘基督教’라는 용어가 등장한 것이다. 이렇게 가톨릭의 ‘天主教’라는 용어와 동격 용어로서 개신교(경정교)를 인식하는 용어이자 상대 측 문서의 ‘Christian religion’(그리스도교)을 반영하는 ‘[耶穌]基督教’라는 새로운 용어가 등장한 것이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16) 필자가 추적한 자료에 의한 추정이기에는 이 용어의 사용 시기(始期)는 좀더 빠를 수 있음을 배제할 수 없다.

오늘날 중국이나 한국에서 ‘天主教’(천주교)는 가톨릭을 지칭하고 ‘耶穌教’[예수교]와 ‘基督教’(기독교)는 프로테스탄트(개신교)를 지칭하는 용어라고 인식하게 된 오류의 결정적인 뿌리를 찾을 수 있다.

결국 ‘기독교’의 어원은 중국어(漢語) ‘基督教’이며 이는 ‘基利斯督’[기리스두]의 축약형 ‘基督’[기두]에 종교를 의미하는 ‘教’자를 결합한 합성어로서 ‘그리스도교’를 의미하는 영어 ‘Christian religion’(Christianity)에 대응하는 중국어 음역어의 한국어식 변형이다.¹⁷⁾

III. ‘기독교’ 용어의 도입

조선에 ‘基督(教)’[기독교]이라는 용어가 들어오기 전에도 ‘天主(教)’[천주(교)]와 ‘耶穌(教)’[야소(교)]라는 말은 이미 17세기 초부터 서학(西學)에 관한 자료와 함께 중국으로부터 들어와 소개되었다.¹⁸⁾ 그리고 공식문서에서도 『조선왕조실록』 중 「인조실록」에 그리스도교에 관련된 기록들이 나온다. 이것들은 당시 일본이 박해했던 자기나라 그리스도인들의 압송에 대해 조선에 협조를 구한 내용으로 여기에 ‘吉利施端’(길리시단), 吉伊施端(길이시단), 吉利是段(길리시단) 등 당시 그리스도인에 대한 호칭들을 엿볼 수 있다.¹⁹⁾

17) 다만 예수회선교사들의 선교초기에 이렇게 광둥어(廣東語) 발음, 특히 난징어(南京語)를 중심으로 남방지역에서 표준어 지위를 갖는 남방관화(南方官話)인 강희관화(江淮官話)의 발음을 기준으로 하여 형성된 ‘기리스두’(基利斯督), ‘기두’(基督) 및 ‘기두가오’(基督教)라는 용어들이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된(1949) 뒤 언어통일정책에 따라 1956년부터 베이징어음 및 官話를 표준음 및 표준 관화(Standard Mandarin)로 삼은 현 푸통화(普通話)로는 ‘지리스두’(基利斯督), ‘지두’(基督), ‘지두자오’(基督教)로 발음되고 있다.

18) 예를 들면, 李晔光, 『芝峰類說』 卷 2, 34(앞면, 뒷면); 李瀾, 『星湖先生全集』 卷 55, 27(뒷면)-30(앞면); 朴趾源, 『熱河日記』[전남대소장본(燕巖山房本)] 卷8, 9(앞면)-10(뒷면) 등 참조.

그러다가 1784년 이승훈의 수세로 시작된 조선 천주교에서는 『성경광익』(聖經廣益)을 포함한 『성경직해』(聖經直解) 등 성경에 관련된 중국어 문헌을 번역할 때 예수는 ‘예수’로 그리스도는 ‘그리스도’ 혹은 ‘그리스두’(기리스두)로 그리스(헬라)어나 라틴어 칭호에 가깝게 음역하여 표기하였다.²⁰⁾ 그럼으로써 중국에서 형성된 그리스도의 칭호 ‘基利斯督’(기리스독)이나 그 축약형 ‘基督’(기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한편, 조선 개신교에서도 성경 번역을 할 때 중국어 성경을 저본으로 삼았지만 로스(John Ross, 羅約翰) 선교사 번역팀이 펴낸 『예수성교누가복음전서』(1882)와 『예수성교전서』(1887)에서 주님의 칭호를 중국어 성경과는 달리 ‘키리스토’(눅2:11, 1882)나 ‘키리쓰토’(1887) 또는 ‘예수키리쓰토’(마1:1, 1887)로 음역해 표기하였다. 또, 일본에서 이수정(李樹廷) 선생은 그가 번역한 『신약마가전복음서언해』(1885)가 저본으로 삼은 『耶穌基督救世主新約全書』(야소기독구세주신약전서)와는 달리 ‘耶穌基督’(야소기독)이라는 한자어 위에 ‘예슈쓰크리슈도스’라고 표기함으로써 신약성경 그리스(헬라)어로 표기된 주님 고유의 이름을 정확하게 나타내려고 했다. 한편 이후에 번역된 한글 성경들도 주님의 칭호에 대한 이러한 훌륭한 전례의 음역을 따랐고²¹⁾ 특히 『성경전서』(1911)에 예수 그리스도의 칭호가 ‘예수 그리스도’로 표기되어 한국어 성경에 정착되었다. 이것은 주님의 칭호 ‘그리스도’가 중국어(漢語) 성경에 표기된 ‘基利斯督’(기리스독) 혹은 그 축약형 ‘基督’(기독)의 영향은

19) 김석주, “《조선왕조실록》에 나타난 17세기 동아시아 그리스도교-〈인조실록(仁祖實錄)〉을 중심으로,” 『교회사학』 제14호(2017), 189-191; 김형곤, “‘기독교’[基督(敎)]이라는 용어의 형성과정과 이 용어 사용에 대한 반성적 고찰,” 97.

20) 김철웅, “성경직해광익,” 『단대신문』 1313호(2011.11.8.), 7면.

21) 모두 그런 것은 아니다. 1895년에 발간된 위원회역본 『마가복음』에는 중국어 성경의 직접적 영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기독’으로 표기하고 있다. 이만열, 『대한성서공회사 I (조직·성장과 수난)』(서울: 대한성서공회, 1993), 156.

물론 라틴어식 칭호인 ‘그리스두’(Christus)의 영향을 뛰어넘어 신약성경 그리스(헬라)어 칭호 ‘Χριστός’에 가까운 음역어라는 데에 크나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가톨릭이나 개신교나 조선 교회에서는 성경이나 성경에 관한 문헌에서 그리스도의 칭호에 대해서는 중국에서 형성된 ‘기리사독’이나 그 축약형 ‘기독’의 사용을 피했으나 사회에서는 그렇지 않았다. 중국에서 형성된 축약형 ‘基督(敎)’의 영향을 직접 받게 되었다. 특히 중국에서 ‘基督教’(기독교)라는 용어가 1850년대에 생성된 뒤 이 용어가 조선에 유입되어 사용된 초기의 용례를 우리는 조선의 근대 최초의 신문 『漢城旬報』(한성순보)에서 발견할 수 있다. 『漢城旬報』는 1884년 7월 11일(음) 자 신문에서 ‘基督教’를 처음으로 소개하고 있다.

그런데 『漢城旬報』가 기사의 내용 중 국내 기사 외에 자주 옮겨 실었던 외국 자료들은 주로 중국과 일본의 신문들이다. 중국 신문은 『申報』(신보), 『滬報』(호보), 『中外新報』(중외신보), 『循環日報』(순환일보) 등이었고, 일본 신문은 『東京日日新報』(동경일일신보)와 『時事新報』(시사신보) 등이었다.

그렇다면 ‘基督教’라는 용어는 1850년대에 중국에서 생성된 뒤 조약문서나 중국 신문 등 문헌을 통해 일본에 먼저 유입되었고 중국과 일본으로부터 『漢城旬報』 등을 통해 조선에 유입 및 소개되었다고 볼 수 있다. 유럽 열강의 강요에 의한 일본의 문호개방 전에도 1937년 싱가포르에서 귀츨라프(K. F. A. Gützlaff) 선교사에 의해 출판된 최초의 일본어 성경 요한복음서(『約翰福音之傳』) 이래²²⁾ 이미 국외에서 유럽 선교사들이 중국어 성경을 저본으로 하여 번역한 일본어 성경이 존재했기에 ‘基利斯督’의 축약형인 ‘基督’이라는 용어는 일본에도 일찍 전해져 있었다. 그래서 특히 메이지

22) 윤혜원, 『일본 기독교의 역사적 성격』(서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1995), 29.

유신(1868) 이후 일본 국내에서 번역된 일본어 성경에도 ‘基督’이라는 용어는 사용되었다.²³⁾ 한편 일찍이 1875년 12월 27일에 창간되어 일본 그리스도교계 최초의 정기간행물로 새롭게 인정받게 된²⁴⁾ 『七一雜報』(칠일잡보, ‘7일에 1회 발행되는 잡다한 소식’)는 제1호에서부터 ‘耶穌教’라는 말이 매 호마다 자주 나오다가²⁵⁾ 제5호(1876. 2. 4)에 ‘基督教’라는 용어가 처음으로 등장한다.²⁶⁾ 그리고 1880년에 ‘東京YMCA’가 창립되면서 ‘東京基督教青年會’로 명명했다.

이렇게 중국(淸)에서 생성된 ‘基督教’라는 용어가 중국과 일본의 영향으로 『漢城旬報』 등을 통해 우리 나라에 소개되고, 후술하는 바 1903년에 창립되는 ‘황성YMCA’를 ‘황성기독교청년회’(皇城基督教青年會)라고 명명하게 되는 등 그 용례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러면서 ‘基督(教)’[기독교]은 ‘그리스도(교)’에 대한 ‘동아시아’식 축약형으로 자리를 잡는다.

23) 다만 그들은 ‘基督’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도 메이지유신 이후 외래어 고유명사 가타카나 사용정책에 따라 ‘그리스도’를 ‘키리스토’(キリスト)로 병기했는데, 그 한 예로 1875년에 발행된 카로저스(Carrothers) 선교사의 『略解新約聖書馬太(マタイ)傳』은 1장 1절에서 ‘耶穌基督’옆에 ‘ヤソキリスト’(야소키리스토)를 달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이수정의 성경번역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

24) 김성은, “근대 일본 기독교 신문과 계몽사상: 『七一雜報』를 중심으로,” 『일본연구』 제26집(2016. 8), 34-35.

25) 일본에서도 ‘穌’ 자 대신 ‘蘇’ 자를 썼다.

26) 이때 등장이 일본 문헌상 최초라고 단언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基督’이라는 용어는 1837년 성경을 통해 일본에 이미 전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1549년 하비에르 선교 이후 일본에 그리스도인들이 생겼고 에도(江戸) 막부 시대의 박해(1612년 금지령)에도 불구하고 260여 년간(1873년까지) 은둔 속에 살아갔던 그들 ‘키리시탄’(キリシタン)을 표기하기 위한 다양한 용어들이 있기에 설령 ‘그리스도교’에 해당하는 말은 존재할 수 있을지 몰라도 중국에서 1850년대에 생성된 축약형 ‘基督教’라는 용어가 일본에서 1850년대 이전에 생성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IV. ‘기독교’ 용어의 정착 과정

‘基督(敎)’[기독교]이라는 용어는 한국 교회가 도입하여 사용하기 시작한 용어가 아니다. 앞에서 논의한 대로 한국 교회는 특히 성경 번역과정에서 그리스도의 칭호에 대한 이 축약형 중국어 음역어의 성경 진입을 막아냈다. 그러나 이 용어는 언론지를 통해 한국 사회에서 형성된 뒤에 한국 교회가 그 영향을 받고 사용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그 정착 과정을 5기로 나눌 수 있다.

1. 제1기: ‘基督(敎)’ (1884-1897)

‘基督(敎)’[기독교]이라는 용어가 중국과 일본으로부터 유입되는 직접적 통로가 되었던 대표적인 언론지는 1883년 10월 1일(이하 음력)에 창간된 조선 근대 최초의 신문 『漢城旬報』(한성순보)이다. 순간(旬刊)으로 발행된 『漢城旬報』는 창간되자마자 제2호(1883. 10. 11)에서 유럽주를 소개하면서 종교 중 많은 사람이 ‘耶蘇敎’(야소교)를 신봉한다고 말하면서 그 안에 ‘希臘敎’ ‘新敎’ 및 ‘舊敎’라는 세 파가 있음을 정확하게 언급한다. ‘耶蘇敎’를 그리스도교 전체를 아우르는 용어로 바르게 사용하는 대표적 용례이다.²⁷⁾ 여기에도 ‘穌’가 아닌 ‘蘇’로 나타나며 한성순보는 그 뒤에도 계속 이 ‘蘇’ 자를 사용한다.

그리고 특히 1884년 1월 3일 자 신문에서는 歐羅巴(구라파, 유럽)의 역사를 소개하면서 그리스도의 탄생 내용에서 ‘그리스도’를 ‘基督’으로 표기함으로써 결국 우리 문헌에 ‘基督’이 등장한다. 그 뒤 영국 런던 소식을 전하면서 ‘天主教’와 ‘耶蘇敎’를 대비시키더니(1월 11일) 노골적으로 그리스도교인을 ‘天主舊敎者’(천주구교자)

27) 같은 맥락이지만 1883년 11월 21일 자 신문에서는 영국의 ‘耶蘇敎’(야소교)를 소개하면서 그 안에 구교(舊敎)와 신교(新敎)가 있음을 언급한다.

와 ‘耶蘇新敎者’(야소신교자)로 분류함으로써(3월 21일) 가톨릭을 ‘天主教’로 개신교를 ‘耶蘇敎’로 이름하기 시작한다.

이러한 과정은 앞에서 논의한 대로 중국의 『遐邇貫珍』(하이관진)에서 볼 수 있었던 중국 언론지에 나타난 중국의 경향이 그대로 반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다가 『漢城旬報』 1884년 7월 11일 자 신문에서 지구와 인류의 관계를 소개하면서 ‘基督教’라는 용어가 처음으로 등장한다. 지구에 관한 기사 내용이 영국 선교사로서 중국에 와있던 자연과학자 李提摩太(Timothy Richard)의 말을 인용하면서 시작하는 것을 볼 때 중국 신문을 옮긴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등장한 ‘基督(敎)’이라는 용어는 그 뒤 각종 언론을 통하여 계속 재생산되었다. 아울러 이 중국어(漢語) 용어와 병행하여 이것을 한글식으로 표기한 용어가 등장하게 되었다.

2. 제2기: ‘기독교’(1896-1933)

‘基督(敎)’이라는 중국어(漢語) 용어가 한국 사회에 유입되어 정착하는 과정에서 제2기를 맞이하는 계기를 1896년 4월 7일에 창간된, 한국 최초의 순한글 민간 신문인 『독립신문』(초기 명칭은 ‘독립신문’이었고 한 면은 영문)에서 찾을 수 있다.²⁸⁾ 서재필 주도 하에 특히 주시경을 교열책임자로 세운 『독립신문』은 그리스도교에 대해 우호적이었으며 용어들을 정확하게 표기하려고 노력했다. 1896년 8월 20일 자 신문에서 논설을 통해 ‘예슈크리시도’와 ‘예슈교’를 처음으로 언급한다. 그러다가 ‘야쇼교회’(1896. 9. 1)와

28) 그렇다고 ‘基督(敎)’이라는 한자어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국한문 혼용으로 된 당시 신문인 황성신문(皇城新聞)에는 계속 ‘基督(敎)’이 등장한다. 『皇城新聞』1898. 12. 10(2면); 1898. 12. 12(3면); 1899. 9. 9(1면); 1900. 4. 4(2면); 1900. 7. 20(1면); 1900. 7. 27(1면) 등. 한편 가톨릭을 ‘基督舊敎’(기독교교)라고 표기하기도 했다. 1900. 7. 21(2면).

‘예수교’(1896. 9. 17)를 언급하고, ‘예수 그리스도’(1896. 12. 24)와 ‘예슈 그리스도’(1897. 1. 21)라는 정확한 음역어 칭호를 사용하려고 노력한다. 특히 1897년 1월 26일 자 신문 특집 ‘론설’을 통해 ‘예수 크리씨도’와 ‘예슈크리씨도’ 그리고 ‘크리씨도교’를 소개하면서 세계 지역에 따라 ‘구교, 희랍교, 신크교’를 믿는데 같은 하나님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에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셋은 결국 같다고 언급한다. 그 뒤 ‘예수 그리스도’라는 칭호로 자리를 잡아갔다.²⁹⁾

그러나 1897년 7월 27일 자 신문에서 ‘기독교인’이라는 용어가 등장한다. 그래서 이 ‘기독교’라는 한글 용어가 신문 지상에 최초로 사용된 사례가 되고 있다. 한편, 1897년 성탄절 무렵 12월 23일 자 신문에서 거의 절반(두 면)을 차지하는 특집 ‘론설’을 통해 그리스도교를 자세히 소개한다. 여기서 ‘야소’ ‘야쇼교’ ‘야쇼 그리스도’ ‘예수’ ‘예수 그리스도’ ‘크리스도교’라는 다양한 음역어 표기와 합성어가 등장하고 ‘크리스도교’를 다시 ‘틴쥬교’와 ‘야쇼교’로 분류하면서 정확한 설명을 보충하고 있다.³⁰⁾ 여기에 나타난 음역어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크리스도교’라는 표기는 그 정확성을 기하려는 노력이 엿보인다. 다만 ‘예수교’라는 용어와 더불어 ‘야쇼교’라는 용어가 함께 사용되고 ‘예수교’가 개신교를 지칭하는 용어로 굳어져 가는 모습을 보게 된다. 그러면서 폐간 무렵인 1899년 11월 21일 자 신문에서 ‘기독교도’라는 용어 속에 ‘기독교’가 다시 등장하면서 당시 용어 사용의 흐름을 알 수 있게 해준다.³¹⁾

29) 『독립신문』1897. 3. 11; 1897. 3. 30.

30) “크리스도교를 믿는디 근년에 와서 그 속에서 파가 갈녀 틴쥬교와 야쇼교가 싱겼는디 틴쥬교와 야쇼교가 믿는 것은 꼭 혼가지나 다른 다른것이 교중 규칙이 다른지라...”(2면)

31) 이 흐름은 『독립신문』 이후 1904년에 창간된 『대한미일신보』에 잘 나타나 있다. ‘예수 그리스도’(1904. 11. 23)와 ‘야쇼교’(1904. 11. 23; 1905. 1. 25)가

한편, 이 시기에 한국 교회는 특히 성경 번역과정에서 그리스도의 칭호에 대한 이 축약형 중국어 음역어가 성경에 들어오는 것을 막아냈다. 이러한 노력은 1897년 2월 2일에 창간된 우리나라 최초의 그리스도교 신문인 『조선크리스도인회보』(조선의 국호가 대한제국으로 바뀐 뒤 1897년 12월 8일 호부터는 『대한크리스도인회보』로 개명)에도 나타난다. 이 신문에는 당시 한국어 성경에 표기된 대로 주님의 칭호를 ‘예수’와 ‘그리스도’로 표기하고 있다. 아울러 ‘예수교’라는 말은 초기부터 등장하며 사용되지만³²⁾ ‘기독교(교)’이라는 말은 사용하지 않다가 10여년 뒤 다시 복간한 『그리스도회보』에 나타나는데 주로 기관의 명칭만 등장하다가 외부로부터 오는 이 용어의 거센 파도를 이기지 못하고 ‘기독교(교)’이라는 용어를 스스로 사용하게 된다.³³⁾

등장하다가 ‘基督教’(1905. 10. 3[3면]; 1905. 10. 11[3면])와 ‘기독교’(1907. 7. 7[2면]; 1907. 7. 24[3면]; 1907. 8. 4[2면]; 1907. 9. 19[1면] 등)가 함께 등장하며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를 ‘耶穌基督’(1907. 9. 22[1면]) 혹은 ‘예수기독교’(1907. 10. 18[1면]; 1907. 10. 19[1면] 등)으로 표기한다. 그러다가 ‘예수교’와 ‘턴주교’와 ‘희랍교’를 논의하면서 ‘예수교’를 개신교의 의미로 사용하고(1910. 8. 26[1면]), ‘턴주교’와 ‘기독교’를 대비시킴으로 ‘기독교’를 개신교의 의미로 사용한다(1909. 12. 22[1면]). 특히 1910년 1월 16일 자에서는 ‘기독교’안에 ‘예수교’(가톨릭을 말함)와 ‘예수신교’(개신교를 말함)가 있다고 설명한다. 용어가 체계화되지 않아 혼선이 일어나는 사례이다.

32) 『조선크리스도인회보』 1897. 9. 1(1면); 1898. 3. 2(6면) 등. 특히 1899년 4월 12일 자에서는 ‘예수교’를 소개하면서 ‘턴주교’와 ‘희랍교’도 함께 같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종교로 소개하고 있다. 한편 이 시기에 함께 발행된 『그리스도신문』(1897년 4월 1일 창간)도 거의 비슷한 흐름이었다. 즉, 당시 한국어 성경에 표기된 대로 주님의 칭호를 ‘예수’와 ‘그리스도’로 표기하고 있고 ‘예수교’와 ‘그리스도 교회’만 등장할 뿐이다. 『그리스도신문』 1897. 4. 1(4면); 1897. 4. 22(4면); 1897. 9. 16(7면); 1897. 12. 16(4면); 1898. 3. 3(7면) 등. 또한, 1898년 1월 1일에 창간된 『협성회회보』나 이 회보가 발전해 1898년 4월 9일부터 1년간 발간된 『미일신문』에도 ‘예수교’와 ‘턴주교’라는 용어만 등장하고 있다.

33) 『그리스도회보』 1912. 5. 15(1, 4면); 1912. 7. 15(4면); 1912. 8. 30(3면); 1913. 3. 8(1면); 1913. 7. 7(1, 3면) 등.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조선크리스도인회보〉 색인,” 『한국기독교와 역사』 제5호(1996. 9), 256, 319; 한

특히 그리스도의 칭호의 중국어식 축약형 ‘기독교(교)’의 사용을 피하려는 노력은 교단 회의록에도 반영되어 있다. 1907년에 창립된 ‘대한독로회’ 회의록은 순한글로 기록되었으며 ‘예수 그리스도’ ‘예수교’ ‘예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등 주님의 이름과 칭호에 관한 모든 표기가 성경 상 번역된 음역어들로 정확하게 표기되고 있다.³⁴⁾ 그리고 이러한 원칙은 제5회 회의록까지 잘 이어진다.

그러나, 1912년 예수교장로회 총회가 구성된 뒤 총회록에는 일제강점기 무단통치의 역사가 나타나 있다. 즉, 일본어가 국어로 바뀌고 조선어 억압정책으로 일본어 병용을 요구하는 시책에³⁵⁾ 부분적으로 응하기 위해 회의록에 한자어를 ‘耶穌敎’로 병기하되 ‘예수교’로 여전히 표기하고 있다.³⁶⁾ 그러나 제4회 총회 회의록에 ‘基督敎會’와 ‘기독교회’가 등장한다. 한자어 표기는 회의에 참석한 日本基督教會朝鮮中會常實委員(일본기독교회 조선중회 상치위원)인 鈴木高志(영목고지) 목사의 축사에 대한 기록에 나타난다.³⁷⁾ 이러한 현상은 그 후로도 총회 때마다 자주 나타난다. 한편, 제5회 회의록에는 동부교회에 속한 조선예수교장로회총회 앞으로 보내는 세계장로회연합공의회회장의 보고서가 국한문으로 번역되어 별지 제3호로 실려 있는데, 여기에 ‘天主教’ ‘更正敎’ ‘基督教’가 나오고, 심지어 그리스도가 ‘基督’으로 표기되어 있다.³⁸⁾ 같은 동부교

국감리교회사학회 편, 『조선 그리스도회보』(서울: 한국교회사문헌연구원, 1988), 제1-3권.

34) 『대한예수교장로회로회회록』(예수교장로회대한노회제1회회록), 1-3, 26-32.

35) 최용기, “일제 강점기의 국어 정책,” 『한국어문학연구』 제46집(2006.2), 14-15.

36) ‘耶穌’가 사회에서 사용하는 ‘蘇’가 아니라 원래 이 용어 생성지인 중국교회가 사용했던 ‘穌’를 사용하고 있다. 훗날 이 문제가 총회에서 거론되어 ‘穌’ 자를 ‘蘇’자로 개정하자는 청원이 있게 되는데 전과 같이 ‘穌’ 자를 사용하기로 결정된다. 『조선예수교장로회총회제20회회록』(1931), 21.

37) 『조선예수교장로회총회제4회회록』(1915), 18.

38) 『조선예수교장로회총회제5회회록』(1916), 78-85. 제7회 회의록에는 전도국 선교회 규칙 제2조 선교회 목적에 “경정기독교장로회의 정신과 은택을 일반 인생에게 보급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선예수교장로

회에 속한 중국 경정교(개신교) 문서를 참고하여 번역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基督(敎)’이라는 말이 우리나라에 유입되고 정착하는 과정에서 중국과 일본의 영향을 계속 받았고 특히 일제강점기에 일본 정부가 앞세운 일본교회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

이후 총회록마다 ‘기독교’이라는 말은 아주 빈번하게 등장하고 있다. 특히 총회 산하 관련 기관의 명칭에 ‘기독교’이라는 용어가 들어가 있어서 이 용어는 너무도 자주 나타나게 된다.³⁹⁾ 그러다가 나중에는 ‘기독교’에 덧붙여진 일반적 합성어들까지 만들어져 총회록에 자주 등장하며 이 용어는 확대 재생산되고 고착화되어 결국 한국 교회마저도 거부할 수 없는 용어가 되어갔다.⁴⁰⁾ 아울러 사회에서는 ‘기독교’이라는 용어의 사용이 더욱 보편화되어 갔다.⁴¹⁾

3. 제3기: ‘기독교’(1933-1938)

이 용어의 정착 과정에서 제3기의 결정적 계기는 당시 조선어 학회가 제정하여 1933년 10월 29일(당시 한글날)에 확정 공표한 ‘한글 맞춤법 통일안’이다.⁴²⁾ 이 맞춤법에 의하면 ‘기독교’는 ‘기

회총회제7회회록』(1918), 73.

39) 예를 들면, 기독교신보, 기독교(교)청년회, 基督(敎)青年會, 基督教中學校(大學校), 기독교(교)청년면려회, 기독교절제회 등.

40) 예를 들면, ‘基督教文化’(제12회, 68면), ‘기독교문화운동’(제20회, 28; 제22회, 57), ‘기독교종교교육’(제21회, 23면), ‘기독교문화운동’(제22회, 57) 등.

41) 1920년에 창간된 『동아일보』의 사설 가운데 창간 이래 1933년까지의 사설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용어를 보면, ‘예수’는 ‘耶穌’로 ‘그리스도’는 ‘基督’과 ‘크리스트’로 표기하면서 초기에는 ‘耶穌(敎)’와 ‘基督(敎)’이 함께 등장하다가 뒤로 갈수록 ‘基督(敎)’ 빈도수가 많아진다. 『동아일보』 1920. 9. 10; 1922. 1. 7; 1923. 12. 25; 1926. 11. 15; 1928. 4. 28; 1928. 10. 21; 1929. 7. 11 등. 동아일보사 간, 『동아일보사설선집』(서울: 동아일보사, 1984), 제1-3권.

42) 이 맞춤법 통일안이 나오기 오래전인 1910년에 이미 ‘기독교’라는 표기를 한 미국 샌프란시스코 이민 동포들의 신문이 있다. 『新韓民報』(신한민보) 1910.

독(교)'이 된다(기도는 기도, 주후는 주후). 그런데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 제23회 회의록에 의하면 '경성조선어학회 대표 리희승'은 1934년 9월 제23회 총회에 성경과 찬송가를 새로 제정된 맞춤법으로 출간해줄 것을 청원하고 그 청원은 총회 본회의에서 받아들여기로 가결된다.⁴³⁾ 그러면서 그해 총회 회의록은 철저하게 새로운 맞춤법에 의해서 기록되었다. 그래서 '기독(교)'은 물론 이 용어가 들어간 모든 말(합성어)까지 '기독(교)'으로 표기되었다(예, 기독교학교). 심지어는 고유명사인 각 기관의 이름까지 철저하게 적용하는 바람에 차기 총회 회의록에는 기관의 이름은 다시 과거 표기로 되돌아가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예, 기독교신보). 그러나 이 '기독(교)'이라는 용어는 각 기관의 이름에 붙은 고유명사로서 뿐만 아니라 일반용어로서도 자주 등장하여 이 용어의 사용이 더욱 보편화되어 갔다.⁴⁴⁾

그리고 사회의 일반신문은 당연히 새로운 맞춤법에 따라가게 되어 '기독(교)'이라는 표기는 급속도로 변저갔다.⁴⁵⁾ 이러한 현상은 해외 동포들의 신문에까지 반영되었다.⁴⁶⁾

4. 제4기: '基督(敎)' 회귀 (1938-1945)

이 용어의 정착 과정에서 제4기의 결정적 계기는 두 가지의 역사적 사실이다. 먼저, 국가 사회사적으로는 일제의 통치형태 변화와 그 정책이다. 무단통치로 압박했던 일제는 교묘한 문화통치의 수법으로 조선의 언어와 정신세계를 점령하다가 마침내 국민화정

1. 12(3면). 다만 일회적이었고 전후로는 '기독교'라고 표기하고 있다.

43) 『조선예수교장로회총회제23회회록』(1934), 36-37.

44) *Ibid.*, 53.

45) 그 단적인 사례가 동아일보이다. 동아일보는 한글맞춤법통일안이 제정되고 확정 공표되기 전인 1933년 4월 1일부터 새로운 맞춤법을 채택한다. 『동아일보』 1933. 4. 6(2면).

46) 『新韓民報』(신한민보) 1935. 2 21 이후.

책(민족말살정책)으로 바꾸었고, 특히 1938년 제3차 조선교육령을 통하여 ‘조선어’ 말살 정책을 수립했고 이어서 ‘창씨 개명’을 요구했다.⁴⁷⁾ 그래서 일간지 신문에 ‘기독교(교)’이라는 한글 용어 대신에 다시 과거에 사용했던 ‘基督(敎)’이라는 한자어 용어가 오르게 된다.

다음, 교회사적으로는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의 신사참배 결의이다. 일제의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조선예수교장로회 제27회 총회는 “神社는 宗教가 아니오 基督教의 敎理에 違反하지 않는 本意를 理解하고 神社 參拜가 愛國的 國家儀式임을 自覺하며” 신사참배를 결의했고, 회의록에는 ‘주후 1938년’ 대신 ‘昭和 13年’이 들어갔다.⁴⁸⁾ 이 결의 성명서에 들어 있는 ‘基督教’라는 용어가 모든 것을 상징적으로 말해준다. 그리고 그 뒤에는 ‘基督教’ ‘基督者’가 설교 제목에도 들어갔다.⁴⁹⁾ 다시금 ‘基督(敎)’으로 회귀한 것이다. 이 용어가 중국을 떠나면서 이 용어에서 ‘그리스도’는 사라졌기에 이 용어가 한국 교회에 유입되는 것을 막아내려고 노력했음에도 끝내 일제강점기 상황은 이 용어를 교회 안으로 끌어넣었던 셈이다.

따라서 이 시기에 사용한 ‘基督(敎)’이라는 한자어 용어는 중국어(漢語)로서의 성격보다는 일본어로서의 성격이 더 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이 용어에는 ‘그리스도’의 칭호로서의 모습은 사라진 채 차용어(借用語) 수준에서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에 고착화·체질화되어갔다.

47) 최용기, “일제 강점기의 국어 정책,” 20-21.

48) 『朝鮮耶穌敎長老會總會第27回會議錄』(1938), 겉표지, 1, 9. 한편 다음 해에 열린 제28회 총회에서 개회예배를 시작하면서 ‘묵도’하고 예배를 시작했고, 제29회 총회부터는 개회예배 전에 묵도 후 국가 의식을 먼저 거행하고 개회예배를 시작했다.

49) 『朝鮮耶穌敎長老會總會第30回會議錄』(1941), 1, 31.

5. 제5기: ‘基督(敎)’과 ‘기독교(교)’ 병행 후 ‘기독교(교)’ 정착 (1945 이후)

이 용어의 정착 과정에서 마지막 계기는 해방이다. 해방으로 국권과 언어는 회복되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에 한국 교회와 사회에 완전히 체질화된 ‘基督(敎)’이라는 용어는 해방 이후에도 ‘기독교(교)’이라는 용어와 병행하여 줄기차게 사용되어 왔다. 사회에서는 물론 교회에서도 이 용어는 아무런 거리낌없이 사용되었다. 심지어는 신학대학의 과목 이름(예, 기독교교육, 기독교윤리)은 물론 신학 이론의 명칭에까지(예, 기독교론) 사용되었다. 다만 한글세대로 인해 한글 ‘기독교(교)’으로 정착되었을 뿐이다. 그러나 이 용어 속에서 정착 주인공인 ‘그리스도’를 찾아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의식 없이 이 용어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한국 사회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한국 교회까지도...

V. 나가는 글

서양 선교사들이 중국 선교 과정에서 피땀 어린 노력을 통해 중국은 물론 동아시아에 끼친 영향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 먼저 선교를 시작한 로마 가톨릭 선교사들은 주님의 칭호를 비롯한 그리스도교의 ‘동아시아’식 용어들을 번역하여 정착시키는 데 공헌했다면, 뒤늦게 선교에 가담한 개신교 선교사들은 그 용어들을 토대로 그리스도교의 성경을 완역하여 마련하는 데 공헌했다. 그리고 이렇게 번역된 성경은 동아시아 여러 나라의 선교에 지대하게 공헌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 한복판에 ‘그리스도’의 칭호 문제가 들어 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라는 이름과 직능적 칭호[직함]이자 이름인 ‘그리스도’가 합해진 주님의 이름이다. 즉, ‘그리스도’는 원래 히브리어 ‘마쉬아흐’(메시아, Messiah)를 헬라어로 의역(意譯)한

‘Χριστός’(크리스토스)라는 직능적 칭호로서의 이름이다. 그리고 이 칭호는 각 나라의 언어로 옮겨져 불려지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기독교’이라는 용어는 앞에서 언급한 그 직능적 칭호 ‘그리스도’와 어떠한 관련이 있는가? 필자는 먼저 이 문제를 살피면서 ‘기독교’의 어원을 탐구했다.

중국에서 형성된 ‘그리스도(교)’라는 음역어 ‘基督(敎)’이 먼저 일본으로 전해졌고 이어서 이 용어가 중국과 일본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들어옴으로써 이 용어는 ‘그리스도(교)’에 대한 ‘동아시아’식 축약형 언어가 되었다. 그런데 이 용어가 중국을 떠나는 순간 중국어로 음역된 그 이름과 칭호의 주체인 ‘그리스도’라는 음(音, 소리)이 사라져버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국어(漢語) ‘基督(敎)’은 우리 한글식 음독(音讀)으로 읽고 표기되면서 ‘기독교’으로 그리고 다시 ‘기독교’으로 오늘에 이르렀다.

그렇다면 ‘기독교’의 어원은 일차적으로 중국어(漢語) ‘基督’이며, 보다 근원적 어원은 라틴어 ‘Christus’(크리스투스)이고, 궁극적으로는 그리스(헬라)어 ‘Χριστός’(크리스토스)이다. 따라서 ‘기독교’는 결국 ‘그리스도’의 중국어식 축약형 칭호의 한국어식 음독의 변형이다. 아울러 ‘기독교’의 어원은 중국어 ‘基督教’이며 이는 ‘基利斯督’의 축약형 ‘基督’에 종교를 의미하는 ‘敎’자를 결합한 합성어로서 ‘그리스도교’를 의미하는 영어 ‘Christian religion’에 대한 중국어 음역어의 한국어식 변형이다.

따라서 이 용어는 아직도 중국어로부터 빌려온 차용어(借用語) 수준에 머물러 있는 셈이다. 이것은 주님의 이름 ‘耶穌’를 한국어식 음독에 의한 ‘야소’가 아닌 원래 이름 ‘예수’로 표기하고 불러드린 것과 다른 점이다.

그렇기에 이 문제는 중국에서의 형성 과정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에서의 도입과 정착 과정에서 생긴 문제이다. 따라서 이 용어의

도입과 정착 과정에서 한국 교회에 책임이 크다. 물론 한국 교회는 성경번역에 이 용어의 유입을 막아냈다. 그러나 사회의 사용 흐름과 일제강점기의 언어정책이라는 요인 등으로 인해 한국 교회가 이 용어의 교회 유입을 막아내지 못함으로써 ‘기독교’이라는 용어는 한국 교회와 사회에 고착되었다.

그래서 이 용어로 인한 피해는 결국 한국 교회가 부담하고 있다. 우선, ‘기독교’이라는 용어는 주님 ‘그리스도’의 칭호 자체와 정체성을 나타낼 수 없는 용어이다. 이 용어는 부지불식간에 주님의 거룩한 칭호를 바꾸어버리는 큰 과오를 범하게 한다. 그래서 이 용어는 선교적 차원과 다음 세대를 향한 교육적 차원에서도 문제가 된다. ‘기독교’이라는 용어는 ‘그리스도(교)’ 선교와 교육의 대상인 ‘그리스도’를 담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음, 이 ‘기독교’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을 은연 중 저해하고 있다. 언어는 사고(思考)를 표출하는 도구이지만 거꾸로 사고를 유발하고 형성하기도 한다. 따라서 ‘기독교’가 아닌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용어를 사용할 때 주님의 임재를 누리며 인격적으로 만나며 주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아울러 ‘기독교’라는 용어가 광의로는 그리스도교 전체를 지칭하는 학문적 용어로 쓰일 뿐 대개 일상에서는 협의로 개신교만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이 부분만은 ‘基督教’(기독교)라는 용어의 생성과정에 그 근본 뿌리가 있지만 이 용어가 개신교 그리스도인들만을 지칭하는 용어가 될 수 없다. ‘그리스도교’라는 바른 용어로 수정되어 그리스도를 신앙하는 모든 교회, 즉 로마 가톨릭과 정교회와 개신교를 아울러야 한다. 그리고 그 안에서 세부적으로 구분되어야 한다.

문화의 도입 과정에서 초기에 ‘기독교’이라는 용어는 필요했고 중요했고 그 역할을 다 해냈다. 이제는 주님 그리스도를 우리의 언어와 정서로 표현해야 한다. 우리 한글은 뜻글자가 아니라 소리

글자이기에 주님 ‘그리스도’의 칭호를 그 어느 나라 말보다 가장 정확하게 부를 수 있고 표기할 수 있다. 이렇게 과학적이고 아름다운 우리의 훌륭한 언어로 주님 그리스도의 칭호를 직접 표기하고 말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럼으로써 이 용어가 안고 있는 사대주의적 요소와 일제 잔재의 요소로 인한 오해를 불식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에 대한 ‘동아시아’식 축약형 언어에 더이상 간혀 있어서는 안 되고 빨리 벗어나야 한다. ‘기독교’는 ‘그리스도교’로 수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기독교’를 어두(語頭)로 하는 합성어나 복합어들은 이제 ‘그리스도(교)’나 ‘그리스도인’을 어두로 붙여줌으로써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드러나게 해야 한다. 예를 들면, ‘기독교인’은 ‘그리스도인’으로, ‘기독교론’은 ‘그리스도론’으로, ‘기독교윤리’는 ‘그리스도교윤리’로, ‘기독교 청년’은 ‘그리스도인[교] 청년’ 등으로 표현해야 한다.

우리가 주님 ‘그리스도’의 칭호를 되찾아드리고 바르게 불러드림은 주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드리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아울러 이것은 삶의 현장 ‘지금 여기서’(hic et nunc) 주님 그리스도의 임재와 통치(나라)를 누리는 일이 될 것이다.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십시오.”

(누가복음서 11:2b, 새번역성경)

참고문헌

- 김석주. “《조선왕조실록》에 나타난 17세기 동아시아 그리스도교:〈인조실록(仁祖實錄)〉을 중심으로.” 『교회사학』 제14호(2017), 183-208.
- 김성은. “근대 일본 기독교 신문과 계몽사상: 『七一雜報』를 중심으로.” 『일본연구』 제26집(2016. 8), 33-63.
- 김철용. “성경직해광익.” 『단대신문』 1313호(2011. 11. 8).
- 김형곤. “‘기독교(교)’[基督(敎)]이라는 용어의 형성과정과 이 용어 사용에 대한 반성적 고찰.” 『신학과 사회』 제33집 제3호(2019), 65-113.
- 동아일보사. 『동아일보사설선집』. 서울: 동아일보사, 1984. 제1, 2, 3권.
- 리치, 마테오[利瑪竇] 지음. 송영배 등 옮김. 『천주실의(天主實義)』.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1999. [부록(영인본)].
- 朴趾源. 『熱河日記』[전남대소장본(燕巖山房本)] 卷8.
- 유승상. “예수회 중국 활동의 선구적 성과인 『천주성교실록』에 대한 초보적 연구.” 『신학과 철학』 제18호(2011 봄), 45-75.
- 윤혜원. 『일본 기독교의 역사적 성격』. 서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1995.
- 李晔光, 『芝峰類說』(影印本). 서울: 景仁文化社, 1970
- 李瀾, 『星湖先生全集』 卷 55. 民族文化推進會. 『影印標點 韓國文集叢刊 199 (星湖全集 II)』. 서울: 民族文化推進會, 1997.
- 차배근. 『중국근대언론발달사(1815-1945)』.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09.
- 최용기. “일제 강점기의 국어 정책.” 『한국어문학연구』 제46집(2006.2), 9-32.
- 한국감리교회사학회 편. 『조선 그리스도회보』. 서울: 한국교회사문헌연구원, 1988(제1-3권).
-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조선크리스도인회보〉 색인.” 『한국기독교와 역사』 제5호(1996. 9).
- 金尼閣(Nicolas Trigault). 『西儒耳目資』(下冊)[列邊正譜](1626). 北京: 文字改革出版社, 影印本, 1957.
- 羅明堅(Michele Ruggieri). 『天主教實錄』(『新編西竺國天主實錄』, 1584) [온라인자료] <https://archives.catholic.org.hk/Rare%20Books/CIJ1/index.htm> (2021. 5. 17 접속).

馬雲霞. “早期傳教士作品中的新詞創制.” 「山西大同大學學報」(社會科學版) 第29卷 第1期(2015. 2), 68-71.

徐宗澤. 『中國天主教傳教史概論』(1938). 上海: 上海書店, 影印本, 1990.

陽瑪諾(Emmanuel Diaz, Jr.). 『(天主降生)聖經直解』. [온라인자료]
<https://gallica.bnf.fr/ark:/12148/btv1b9006259g/f397.image>
(2021. 5. 17 접속).

作者未詳. 『萬物始元』. [온라인자료] <https://gallica.bnf.fr/ark:/12148/btv1b9006575m/f68.image> (2021. 5. 18 접속).

『六合叢談』(1857). [온라인자료]. <https://gallica.bnf.fr/ark:/12148/btv1b9006575m/f68.image> (2021. 5. 19 접속).

『遐邇貫珍』(1854-1856) [온라인자료] Search Result - MMIS (hkpl.gov.hk)
(2021. 5. 19 접속)

『독립신문』『대한미일신보』『新韓民報』『皇城新聞』등. 국립중앙도서관 “대한민국 신문 아카이브.”

『조선예수교장로회총회회록』제4회, 제5회, 제7회, 제20회, 제23회, 제27회, 제28회, 제29회, 제30회.

カロザース(Carrothers). 『略解新約聖書馬太(マタイ)傳』(1875).

Medhurst, W. H. (Sen.). *English and Chinese Dictionary* [Vol. I].
Shanghae: The Mission Press, 1847.

Morrison, R. *A Dictionary of the Chinese Language*. Macao: The
East India Company's Press. 1815(P.I-V.I), 1819(P.II-V.I),
1822(P.I-V.II). [온라인자료] <https://www.univie.ac.at/Geschichte/China-Bibliographie/blog/2010/12/19/morrison-a-dictionary-of-the-chinese-language/> (2021. 5. 21. 접속).

Williams, S. W. *An English and Chinese Vocabulary in the Court
Dialect*. Macao: The Office of the Chinese Repository, 1844.

Abstract

The Origin of the Term “Gidok(gyo),” Its Adoption and Taking Root in Korean Church and Society

Hyung-Kon Kim

(Gwangju Bookmoon Presbyterian Church/Pastor/Church History)

Jesuit missionaries in China transliterated the Latin word “Christus” into “Giliszedu”(基利斯督). Next, they shortened the term “Giliszedu”(基利斯督) to “Gidu”(基督) using its first and last letters. Then, they combined “giaou”(教) with “Gidu”(基督) to form the term “Gidugiaou”(基督教) as the Chinese equivalent of “Christian religion” in an international treaty document(1858). Therefore, the origin of the term “Gidok(gyo)” is “Gidu(giaou)” (基督[教]) which is the Chinese transliteration of “Christ(ianity).”

The term “Gidu(giaou)” (基督[教]) was introduced to Korea by the journal *Hanseongsunbo* in 1884. Thereafter, the Chinese term “Gidu(giaou)” was first transcribed into the Korean word “Geuidok(gyo)” (기독교) by the journal *Doklipsinmun* (the *Independent*) in 1897 and then into “Gidok(gyo)” (기독교) in 1933 afterward. Thus, the term “Gidokgyo” rather than “Geuriseudogyo” is now used in everyday language.

However, we cannot discern the titular name and the identity of Christ explicitly in the term “Gidokgyo”. This results in crucial problems in Christian education and evangelism. Therefore, we should use the term “Geuriseudo(gyo)” and its compound words in our everyday spoken and written language. This will allow us to be more aware of the presence and the reign of the enthroned Christ, which will enable us to live out the Kingdom of God here and now.

Key Words: Giliszedu(基利斯督), Gidu(giaou)(基督[教]), Gidok(gyo),
Geuriseudo(gyo)

논문투고일자: 2022. 01. 18

논문수정일자: 2022. 02. 23

게재확정일자: 2022. 02. 24